실무형 정책보고…점령군 행세는 없었다

■ 인수위, 부처·기관 업무보고 평가와 향후 일정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 로드맵 본격화

‘낮은 인수위’ 강조 불구 “불통” 비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대통령실을 끝으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 진행된 46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18일 한국은행 업무보고가 남았지만 공식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의견청취 성격이 강하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로드맵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의 특징은 과거에 비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기조를 둘러싼 혼선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 마찰도 표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 인수위에서는 설익은 정책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논란으로 비화하거나, 인수위가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군기잡기식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바람에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인수위’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의 생산보다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초점을 맞추고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사라졌다.

또 과거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걸렸던 보고시간도 1~3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보고 장소에도 실무진만 배석하게 하는 간소한 실무형 보고를 진행했다.

반면, 인수위가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내용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개략적이나마 언론에 알려 국정운영 방향을 조금씩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업무보고마저 제목만 읽어주는 수준의 지극히 일반적인 일부 내용만 브리핑하면서 ‘불통 인수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또 인수위 파견 부처 공무원의 출신지역 비율, 특히 영·호남지역 비율이 높은 차이가 나면서 지역공약 및 현안에 대한 부처별 보고 내용이 편파적이었을 것이고 이 때문에 향후 국정과제 확정하는 과정에서 영남 우대, 호남 홀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이제부터 인수위는 정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의견과 박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분과별 세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전문가 정책간담회, 현장방문도 진행키로 했다. 분과별 검토가 끝나면 인수위 총괄 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가 결과를 취합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소요액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겠다는 계획이다. 일정표대로라면 이달 말께 박 당선인에게 1차 종합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민주당을 방문한 진영(사진 오른쪽) 대통력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일호(사진 가운데) 당선인 대변인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비대위’ 닷새째 ‘제자리 걸음’

대선평가·전대준비·정치혁신위 등 정상가동 못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 체제가 17일로 닷새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 비대위원 2명의 인선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비대위의 핵심 과제인 대선평가위·전대준비위·정치혁신위 등의 구성 역시 윤곽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대위는 이날 저녁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비대위는 외부 비대위원 2명을 각각 대선평가위원장과 정치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대선평가위원장과 정치혁신위원장에는 관심을 두는 외부 인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비대위원 겸임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비대위원과 각 분과 위원장을 분리해 인선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문 위원장은 의총에서 비대위 활동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비대위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것도, 알라딘 요술램프를 가진 것도, 흥부가 박 타는 것도 아니다”면서 “‘박근혜식 비대위’가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4·11 총선에 대한 민주정책연구소의 비공개 평가보고서가 배포돼 관련한 논의가 벌어졌다.

평가보고서는 총선 직후 문성근 대표 대행 시절 작성됐으나,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내에서도 ‘밀봉’돼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선평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원 및 당무위원, 지역위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대선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희상, 20대 총선 불출마 시사…계파주의 종식 호소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20대 총선 불출마까지 시사하면서 계파 및 당파주의 종식을 호소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미워할 것은 친노(친노무현)란 이유로, 비노라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는 우리들 속의 당파적 심리, 당파주의”라며 “이걸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노니 비노니, 주류니 비주류니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 친노 아닌 사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안 팔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가 이기면 뭐하나. 만경창파 조각배를 타고 선장 누구 하나를 놓고 싸우다 난파선 돼 빠지면 다 죽는다”며 “민주당이라는 배가 일엽편주처럼 간당간당하는데 뒤집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란의 위기,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돼야 하며, 죽기를 각오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는 정치적 인생의 꿈이 없다”면서 “다음 대표, 원내대표 나갈 사람도 아니고 다음 국회의원 나갈 사람도 아니다”라고 20대 총선 불출마 입장까지 시사하면서 당내 단합을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동흡 의혹’ 朴당선인에 정치적 부담되나

“인사청문회 지켜볼 것”…내부선 우려 목소리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긴 하지만 박 당선인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동흡 후보자가 혹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오는 21~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논란이 커진다면 내주로 예상되는 박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 일단, 박 당선인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측근은 “박 당선인이 한 인사도 아닌데다 인사청문회가 곧 열리는 만큼,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본다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박 당선인이 이 후보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이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박기춘 “택시법 거부권, 사회합의 깬 것”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택시법 통과 당시 재의 요건인 재적의 3분의 2가 넘는 239명이 법안 통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정희 “대선 패배 책임에 동의”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는 16일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선 패배 책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대강당에서 전남 서남권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 정치와 호남의 선택’이란 주제의 강의에서 “광주·전남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한 투표에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대선 패배 책임에 동의한다”면서 “서로에게 패배의 책임을 떠넘기기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이동흡 후보 비리의혹 해명 해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비리의혹이 야당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소 전 현직 관계자, 판사 등 제보로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청와대는 법조계 일부와 진보인사 그리고 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내부결속을 위한 것”이라며 “비리의혹을 정치공세로 몰아가려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를 모독하고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려는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매투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투자대비 고수익 가능
NPL투자
▶낙찰받을 확률 99%
▶양도소득세 1%
▶소액투자 가능
▶단기내 투자금 회수
★특수비법 배우실 분 상담★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 물류센터 [전북김제] ☜ 대8076㎡ ,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 근린시설[수기동] ☜ 대197㎡ , 건722㎡ 감정가 14억 최저가 5억 7천
☞ 주유소 [나주남평] ☜ 대4428㎡ ,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 신안압해 [횟집,판매] ☜ 대4706㎡ ,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 원룸[계림동] ☜ 대333㎡ ,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 상가[신창동] ☜ 대 67㎡ ,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 공장 [나주공산] ☜ 대29710㎡ ,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 숙박시설 [치평동] ☜ 대704㎡ ,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공장 [장성동화] ☜ 대1983㎡ ,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 임야 [전주완산] ☜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5억5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3289평 ▷건물1601평 ▷감정가 52억4천 ▷최저가 36억7천
☞ 운암동 (근린시설) ☜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5천 ▷최저가 27억7천
☞ 화정동[예식장] ☜ ▷대지330평 ▷건물1016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1억(협의후결정) 요양병원적합
☞ 첨단 (오피스텔) ☜ ▷대지154평 ▷건물389평 ▷감정가 13억5천 ▷최저가 10억8천 수익률 최고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용도지역:자연녹지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